

유튜브 [임마누엘교회울현동] 인스타 [임마누엘교회울현동]
홈페이지 [www.immch.or.kr] 카카오톡채널 [임마누엘교회]

1 처음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이웃사랑 감사나눔 바자회를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익금 전액 13,178,000원은 취약계층 난방 및 김장 지원에 사용됩니다.

3 대입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1.14(목)

고세훈, 고지후, 구진모, 김민석, 박찬혁, 유리현, 주하람, 황준희, 서윤지, 성윤지, 이주은, 이한나, 정수아

4 2025 사역신청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역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로비 수거함에 제출하시면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김경현 목사 010-9211-1182

5 임마누엘 성탄축하파티

12. 22(주일) 성탄축하파티에 공연으로 함께하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개인, 가족, 속회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유한나 목사 010-9670-0537

6 탁구대회

11. 17(주일) 오후 2시 30분~ 수 탁구장
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11. 10(주일)까지 게시판
참가비 1만원 문의 정기평 권사 010-9102-7673
주관 탁구선교회

새가족 등록 절차

- 1 새가족실(B1)에서 신청서 작성
- 2 일대일 양육
- 3 속회(소그룹) 배정
- 4 양육수료후 등록교인이 됩니다

임마누엘교회 새가족국

02.3411.1918
010.3880.7209
변희주 권사

예 배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9시 11시	본당
유아유치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청소년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시30분	본당
수요예배		오전 10시30분	본당
금요일말씀기도회		오후 8시	본당
속회예배	목-토		

오 시 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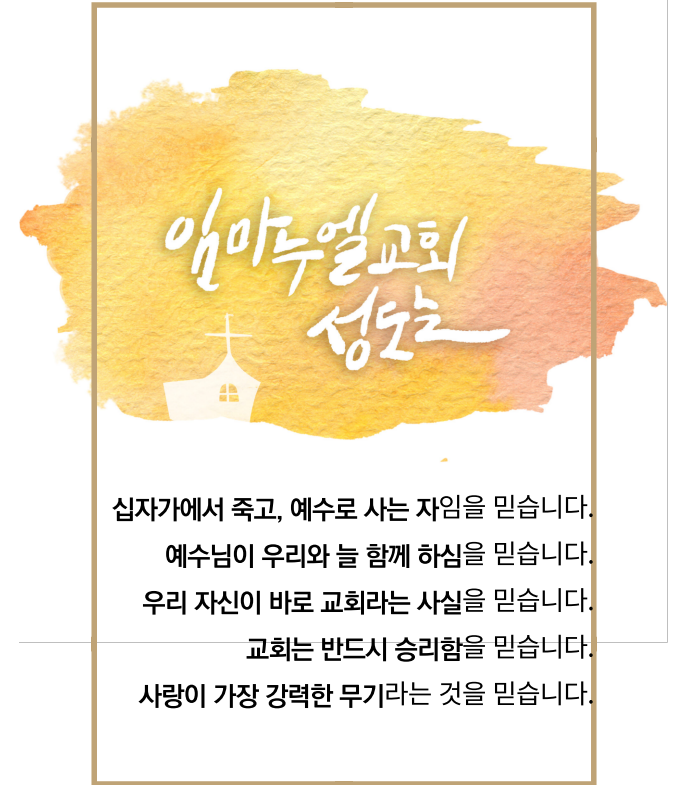


섬기는 교회 | 선교사

해외 강남진 임명호선교사 잠비아
이준 위문선교사 태국
류승현 황윤주 선교사 르완다

국내 기동교회 안민혁목사
영파교회 고병선목사
익산벨레교회 마춘철목사
극동방송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행복한선교회
건국대학교병원 교회 정명희 목사
서울삼성병원 교회 김정숙 목사

담임목사 김영광
부목사 김경현 유한나
전도사 염민아
원로목사 임규호
원로장로 김현식 박양수
시무장로 전병희 마승초 주진범 주창호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경배와찬양	다함께
*찬양	나를 통하여 다함께
*예배로의부름	김영광 목사
*신앙고백	다함께
대표기도	1부 김문숙 권사 2부 전병희 장로
성경	사도행전 21:27-22:29(새번역) 사회자
특송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임마누엘찬양대
설교	간증하며 살기 원합니다 김영광 목사
*봉헌과결단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다함께
*축도	김영광 목사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일 대표 기도

11/17 1부 김선미 권사
2부 마승초 장로

11/24 1부 김성진 권사
2부 주진범 장로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30

시편

김영광 목사
김경현 목사
유한나 목사

교회, 나의 기도원

화 ~ 토 오전 9시-오후 6시

성전기도시간 본당에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예배] 오전 10:30

[수요전도] 오후 1:00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00

[속회예배] 목-토

가정예배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주일 저녁에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온 세대 주일사도행전 말씀으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 1)찬양으로 예배 시작(QR코드)
- 2)성령의 조명을 위한 시작기도
- 3)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말씀읽기
- 4)인도자의 말씀 선포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명씩 나누고 기도
- 5)마침기도

찬양_ 예수로 살리
말씀_사도행전 22장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이 율법과 할례를 무시하고, 비방하기까지 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야고보와 예루살렘교회 장로들은 유대 결례예식을 사람들 앞에서 진행하자 권했고, 바울은 묵묵히 그 안내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해하려하지 않았습니다. 결례예식이 끝나는 날, 유대인의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사람들은 그가 성전에 이방인을 끌어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오해는 폭동으로 이어졌고,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한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급기야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 로마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바울을 연행했습니다. 천부장은 무리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으나, 사람들이 저마다 소리를 질렀기에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무리에게 심하게 매를 맞아 스스로 걸을 수도 없게 된 바울은 천부장에게 '사람들 앞에서 변명(변증)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천부장의 허락으로 변론할 기회를 얻은 바울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회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생생하게 만났는지 그 시각, 촉각, 청각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정예배

무엇보다 바울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주도하심 아래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된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음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입니다. 바울의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이야기를 듣자 유대인들은 흥분하여 바울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이 무리는 바울이 만난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울을 해할 고투리 잡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말에 크게 격분하며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와 간증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나에게만 눈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관계 없이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죽을만큼 매를 맞아도, 죽음을 향해 한 발자국을 떼어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함께 나누어 보세요.

- 1)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생생한 간증이 있습니까?
- 2)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위해 오늘도 순종하고 계십니까?

온라인 헌금 안내

농협 355-0074-8968-63

(예금주 : 임마누엘교회)

*송금시 '이름+헌금종류' 기재

예시) 십 일 조-김바울집 / 감사헌금-김바울집
주일헌금-김바울주 / 선교헌금-김바울선
일천번제-김바울일 / 건축헌금-김바울건